



통권 88호

# 후원회 소식

발행일 1999. 2. 12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기협 양심수후원회



지난 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민기협 대표단과의 오찬모임에서 “늘 양심수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며 “이번 3·1절을 기해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수배해제 등 대사면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여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양심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웨기에 실망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온 302명의 양심수 (99.1.15.현재)와 가족들에게 대통령의 약속을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초장기수 17명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을 하지 않더라도 석방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나마지 양심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약을 전제로 사면의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 준법서약이 또다시 석방의 걸림돌이 되어 양심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채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을까 우려스럽다.

이에 민기협은 2월 3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이번 김대중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단행될 3·1절 사면조치에서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고 대사면할 것을 촉구하며 거리캠페인을 열고 있다.



## 양심수 사면에서 조건이 있어선 안된다

**민** 가협 대표들의 대통령 면담이 있는 뒤 3·1절 양심수 사면에 대한 잇단 언론보도들이 있는데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대행은 1월28일 청와대 주례 보고 때 3·1절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수배해제를 건의했고 29일엔 박상천 법무부장관도 비전향장기수 17명을 조건없이 석방하는 내용의 양심수 사면을 대통령에 건의하여 재가를 얻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난해 3·13, 8·15 사면조치 때는 양심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사면에서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매우 경직된 모습을 보였던 법무부가 이같이 전향적인 조치를 건의했다는 것은 모처럼 만에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법무부에서 건의한 3·13사면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양심수 사면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이번 양심수 사면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몇가지 점을 밝혀두기로 한다.

먼저 양심수에 대한 '장기구금' 관행은 그 이름조차 이번 사면을 계기로 없어져야 한다. 민가협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5년이상 복역하고 있는 사람을 장기구금양심수로 잠정 규정하고 있다. 정치, 도덕, 종교, 사상적 확신과 정의, 평화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가 구속된 양심수(확신수 또는 정치수)를 5년이상 구금하고 있는 예는 문명(민주)국가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법무부에서 석방을 건의한 29년 이상 복역은 아니지만 무기 선고를 받고 15년에서 22년까지 복역하고 있는 다음 네 사람을 예로 들어 본다.

**조상록**(54세·1946년 3월 9일생·1978년 구속, 22년째 복역·경희대 법대와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1976년 일본에 건너가 77년 메이지(명치)대학 대학원에 유학 중 조총련 활동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1973년 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정도로 정치

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 보겠다는 꿈 많고 비판정신이 강했던 청년이었다. 그러한 비판정신 때문에 박정희 군사정권의 민정이양을 주장한 것이 미움을 사게되어 구속된, 공안당국이 말하는 '시국사범'이다. 그런 그가 좁은 독방에서 22년을 묶여 산다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손성모**(70세·1930년 1월 15일생·1981년 2월 15일 구속, 19년째 복역·서울대 재학중 의용군 입대, 북으로 감. 함남 화학공업대학교원(교수). 1980년 남쪽 고향에 왔다가 잡혀 무기형을 받고 19년째 복역중. 북에 부인과 자녀가 있다. 분단과 전쟁, 그 전쟁의 와중에서 북에 가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다시 고향에 오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우리현대사가 민족 모두에게 강요했던 비극의 단편들이다.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온 정치수에게 19년 복역은 너무 긴 형극이었다.

**신풍수**(71세·1929년 6월 27일생·1985년 2월 16일 구속, 15년째 복역·보성중학 재학 중 의용군 입대, 북에 감. 루마니아 부쿠레시티 공과대학 기계공학 전공. 귀국후 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원, 장기간 일본생활, 85년 서울에 왔다가 체포, 무기수로 15년째 복역. 특히 신풍수씨는 71세의 고령에다 고혈압,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병약자이다. 북에 부인과 딸이 있다.

**강용주**(38세·1962년 6월 18일생·1985년 9월 9일 구속, 15년째 복역·1980년 광주민중항쟁 때 고등학생으로 참여, 전남대 의예과에 입학해 전남대 민주화투쟁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1985년 학생운동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조작된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사건으로 연루되어 관련 구속자가 다 나왔는데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의지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이 네 사람은 나이도 복역연수도 사건내용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사상전향도 준법서약서

## 마지막 토론을 위하여

도 양심의 자유침해 등을 들어 거부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1988년 12월 21일 양심수 대사면 때 이른바 공안사범으로 분류되어 석방되지 못했던 마지막 남은 네 사람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등이 적용되었던 구미유학생사건, 재일동포사건, 일본관련사건, 납북어부사건, 통혁당재건사건, 남파정치공작사건 등으로 대전, 광주, 전주, 대구, 안동교도소에 수감되었던 225명과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하여 사회안전법에 의해 청주감호소에 감호처분을 당하고 있던 35명 등 260명 가운데 모두 풀려 나오고 21명만 남은 중에서 29년 이상 복역한 17명을 조건없이 석방한다할 때 남을 네 명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3월부터 한국의 인권과 관련해 3개월간 한국 인권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 그러한 압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권후진국의 명예를 벗어야 할 것이다.

비전향장기수의 조건없는 석방조치는 뒤늦기는 했지만 50년 이어온 반공과 반북 냉전과 공안시각의 편협에서 이성과 보편의 세계로 분단과 갈등에서 화해와 통일로의 디딤돌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오랜 독재와 억압의 야만에서 자유와 해방의 문명세계로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갈라진 조국이 하나되는 것을 염원하며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키고 있다. 17명과 함께 네 사람이 반드시 조건없이 석방됨으로써 값진 일에 더욱 알찬 열매를 맺게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민애전)사건의 최호경, 장창호, 조덕원씨,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류락진씨와 이화춘씨가 장기형을 받고 5년이상 복역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비전향장기수만은 준법서약을 쓰지 않고도 풀려날 수 있다는 말의 함축성이다. 이 말은 그 외 양심수들은 준법서약을 써야 한다는 말일 수 있다. 지난해 8·15사면에서 양심수 사면의 필수조건으로 내

세운 준법서약제의 문제점은 각종 토론회와 행정 현장 등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 양심의 자유침해를 비롯하여 준법서약서가 사상전향제도와 같이 재소자 분류처우에서 악용되고 있으며 실질적 준법수단으로서 실효성도 부정되었다. 오히려 새 정권이 주장했던 민주개혁정신에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도 반하는 억압도구로 인식되었다. 이미 집권당인 국민회의에서도 준법서약이 사면의 필수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회여론에 공감하였다. 대통령도 양심수전원 석방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양심수 사면의 역사적 당의성과 의지가 있다면 조건을 두어 원래의 목적에 걸림돌이 되게 해선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심수 사면에서 기결·미결을 가리지 말고 양심수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수배해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미 1988년 12월 21일 양심수 대사면에서 조사받거나 재판받던 사람들을 검사와 판사가 조건없는 구속취소로 모두 석방하였으며 정치적 이유로 수배되었던 사람들을 아무 조건없이 수배해제 한 바 있다. 대통령 사면의 의미는 이처럼 법의 판단을 넘어 역사와 정의를 바로 잡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감옥엔 비전향장기수 말고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구국전위사건등으로 장기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부당하게 이적규정을 받아 고통받고 있는 한총련 학생들과 IMF가 원인이 되어 무더기 구속된 노동자들, 이적규정을 받고 있는 노동, 청년운동단체 구속 양심수들이 302명에 이르고 있다. 양심수를 감옥에 두고서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바라는 발상은 냉전과 공안논리일 뿐이다.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고 양심수였던 사람들의 사면, 복권과 정치적 이유로 또는 노동운동과 관련 징기고 있는 모든 정치수배자를 수배해제하는 대사면이 있게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 중환자인 형님대신 차라리 제가 감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편집부

**김**은완님(61세)의 몸은  
많이 불편하다.

돌아간 입과 신경이 죽어  
깜박여지지 않는 한쪽 눈 그  
리고 모두 빠져버린 이.

93년 갑작스레 당한 교통  
사고로 김은완님은 '식물인  
간'이 되었다. 한 직장의 중  
역으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리고 옥에 갇힌 형에겐 세

상을 향한 유일한 창으로 생활하던 건강하던 중년의 남  
자가 어느날 갑자기 길바닥에서 '식물'이 되어버린 것  
이다.

아무런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을 보내던  
어느날 눈을 떠 보니 김은완님의 눈 앞에 막내딸이 서  
있었고 자신은 알지 못하는 병원침대에 여러개의 고무  
관을 여기저기에 꽂고 누워있었다. 의식을 찾은 후에도  
김은완님은 2년동안 병상생활을 한 후에야 겨우 퇴원을  
할 수 있었고, 많이 나았다고는 하나 예전의 몸으로 돌  
아갈 수는 없었다.

퇴원후 간신히 걸어 찾아간 대전교도소.

다시 동생을 만난 형, 김은환 선생님(71세)은 동생의  
망가진 몸을 보고 통곡을 쏟아내었다. 30년 감옥살이에  
병을 얻은 자신의 몸보다도 특별면회를 할 때면 마치 어  
린애 다루듯 끌어안고 얼굴을 어루만지며 보고 다시 보  
던 동생의 얼굴과 몸이 망가진 것이 김은환 선생님은 더욱  
서러웠던 것일까.

김은환 선생님의 고향은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수서



리(현 강남구 수서동)이다.

김점성님의 7남 1녀 중 김  
은환 선생님은 둘째 아들  
로, 은완님은 다섯째 아들  
로 태어났다. 은완의 유년  
기는 유복했다.

약주를 전혀 못하는 엄격  
한 아버님 밑에서 농사가 많  
은 중농의 평화로운 가족.  
자식들을 위해 평생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일만 하시던 부모님. 대종가집이라 더욱 시  
끌벽적하며 축재분위기에 휩싸이던 명절날과 그 많던  
제사들. 어디를 가든 언제나 일등 자리를 내놓지 않을만  
큼 공부를 잘해 집안의 자랑이던 형들. 올망졸망하던 동  
생들.

왜정때의 일이다. 경성대학을 다니던 만형 김은용님  
은 집에 들렀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다. 공출을 많이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인이 아버지  
에게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화가 난 만형은 일본  
인을 초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패고는 그 길로 일본으로  
도주를 했다. 그 후 5년인 43년, 군인이 되어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온 만형덕에 동네 전체가 공출을 면할 수  
가 있었다. 해방이 된 후 만형은 한국군 경비대 장교로  
편입이 되었고, 6.25 당시 웅진전투에 참가했다 후퇴하  
던 중 집에 잠시 들렀다 인민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당시 둘째, 셋째 형들과 저는 신당동집에 있었습니  
다. 자식들이 모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  
에 집에서는 신당동에 따로 집을 구해 저희들은 그곳에  
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혼비백산이 되어 저희를 찾아



‘형님, 이제 형님도 이 세상을 놔갈 때가 되었고 나 역시도 그걸습니다.

도대체 왜 형님이 30년이나 간혀 있으려니 말니까...’

형님이 재물을 두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나는 가족이 그리워서 내려온 거뿐이다. 내가 전장을 놔지 않는 것은  
내가 놓지 않은 것을 냈다고 시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네 말대로 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대로 깨끗하게 내 양심을 지키며 살다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오신 어머니께서는 둘째형에게 자초지종을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을 다 듣고 나자 둘째형은 한밤중에 과출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큰 형을 풀어 달라고 해 큰 형은 23일만에 풀려났고 작은 형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 같이 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광주 군청에서 형이 보낸 편지가 형의 마지막 안부였고 저는 형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종가집 장손이 죽으면 그것으로 한 집안이 끝나는 것으로 알던 시대이니 큰 형을 위해 작은 형이 희생되었다고만 생각했죠.”

김은완님은 1950년 8월 추석을 잊을 수가 없다.

전쟁중에도 어김없이 하늘에 동설 뜬 달이 김은완님에게는 설움의 달이었고 무시무시한 고통을 알리는 전조처럼 느껴졌다. 지금도 8월 추석전부터 근 한달간은 음식을 넘기기도 힘이 들만큼, 그 해 추석은 잔혹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 해 추석, 서울은 인민군이 모두 후퇴하고 다시 국군이 들어와 있었다.

추석날 저녁무렵 당시 우익단체인 ‘대한 청년단’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평생 땅을 벗삼아 스승삼아 예의를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살던 부모님과 당시 한양공업고 등학교에 다니던 꿈많던, 열아홉살의 청년이던 셋째 형은호님과 겨우 열네살이던 은완님은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매를 맞으며 그들에 의해 끌려갔다. 그리고 시작된 고문. 멀쩡하던 사람을 까무라치게 하고 치를 떨게 하는 끔찍한 고문에 끌려간 식구들은 모두 초죽음이 되어 갈즈음 큰 형마저 끌려왔다. 17일만에 김은완님은 풀려났다. 너는 어려서 내보내지만 네 부모와 형들은 다 죽일 것이라는 말을 비몽사몽간에 듣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과 두 형은 총살당했다, 둘째 김은환 님이 인민군

을 따라갔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으로 몸이 모두 상해 도무지 걸을 수가 없어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던 김은완님은 작은 아버지의 등에 업혀 돌아왔다.

바지런한 어머니 손에 의해 아담하게 가꾸어져 있던 집은 불에 타 그 다정하던 자취를 찾기 힘들었고 땅도 모두 빼앗겨 살 길이 막막했다. 더욱이 수시로 들이닥쳐 그를 몹시 두들겨 패던 대한 청년단의 존재는 김은완님을 더욱 서럽게 만들었다.

“당시 죽임을 당한 부모님과 형들의 시신을 찾지 못해 눈을 감겨 드리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드리지도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자식으로서 천추의 한이 됩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자식의 행위로 인해 부모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 그 사람을 30년 씩이나 가두어 두다니 어디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불편한 몸이지만 단정하게 앉아 침착하게 얘기를 하던 김은완님은 부모님과 피어보지도 못 한채 저버린 형들을 생각하자 감정이 복받치는지 코 끝이 붉어지며 말소리가 가늘게 흔들렸다.

성년이 되어서도 김은완님의 생활은 결코 평탄치 못했다. 한 직장에서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연좌제가 시퍼런 칼날로 바로 목을 거누고 있는 신원조회와 형사들의 잦은 방문을 달가워할 사장은 없었다.

어렵사리 다시 구한 직장인 한일철강에 다니던 69년의 일이다. 69년 9월,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가 지하실에서 17일동안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14살에 헤어져 죽은 줄만 알았던 은환형에 대해 말하라는 온갖 추궁을 당하고 고문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죽은 줄 알았던 은



▲ 김은환씨를 비롯한 초장기수 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

환형님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다가 가평읍에서 그 동네 사람의 신고로 붙잡힌 것이었다. 형님은 남한땅을 밟고 몇시간도 안되어 체포된 것이다.

“제가 처음으로 형을 면회한 것은 73년도 였습니다. 당시에 형님은 서대문 형무소에 계셨는데, 면회시간을 3분 주더만요. 죽은 줄만 알았던 형님과 23년만에 마주 앉고 보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첫 면회때는 그렇게 별 말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시 면회를 갔지만 위낙 분위기가 엄격해서 그때도 아무말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끊임없는 전향공작과 고문 그리고 이십여년의 독거 생활로 초라하게 시든 중년으로 수의를 입은 채 앓아있는 형이 모습에서 김은완님은 마지막으로 보았던 의지가 강하고 혈기 왕성한 청년이던 둘째 형의 모습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당장 형으로 인해 입게 된 상처들을 머릿속에서 모두 지워 버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79년도로 기억됩니다. 당시 형님은 대전교도소에 계셨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을 전향시키려고 하니까 와서 협조를 좀 하라더군요. 저는 시키는데로 형님을 붙잡고 전향을 하라고 호소했는데 형님은 되려 호통을 치시며 그럴수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때의 면회도 역시 서먹서먹하게 끝나고 말았는데, 나중에 87년도가 되어

서야 형님이 그 때 실은 면회가 끝난 후 말을 잘못했다고 해 끌려 들어가 심하게 매를 맞는 통에 이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두 망가졌다 고 하시더군요.

언제였던가, 내가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도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되었고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자리에서 형제간에 숨김없이 대화를 합시다. 도대체 왜 형님이 30년이나 갇혀 있어야 합니까. 정말 간첩행위를 했습니까?’ 형님이 제말을 듣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아니다. 나는 가족이 그리워서 내려온 것뿐이다. 내가 전향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은 짓을 했다고 시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네 말대로 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대로 깨끗하게 내 양심을 지키며 살다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은완님이 은환형님을 면회한 것은 불과 손에 꼽을 정도인데 지난해 3월, 대통령 대사면때는 형님이 석방되는 줄 알고 교도소 앞에서 3일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 당시 면회할 때, 형님이 “늘 석방을 위해 애쓰는 어머니들이 있다”며 탑골공원 앞 목요집회에 가보라고 했단다. 세상이 무서워 TV뉴스나 신문도 안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도 안갖고 살아왔던 은완님은 형의 권유대로 목요집회에 가보니 ‘김은환’ 이란 이름 석자가 적힌 피켓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이 모여서 김은환을 석방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동안 ‘김은환’ 이란 이름을 입밖에 내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뀐줄도 몰랐던 것이다.

현재 김은완님은 경북 봉화에 있는 범불사에서 생활하신다. 5년만에 병상에서 일어난 후에도 김은완님은 살 생각보다는 죽을 생각을 먼저했다. 그러던 중 한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는 김은완님에게 불교로 귀의할 것을 권유했다.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으로 100일 기도에 들어갔을 때만해도 번민이 많았다. 그러나 200일 300일

기도를 하면서, 석존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꺼운 얼음처럼 얼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성한 몸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평온해진 마음으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수 있었고 형님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형님이 위해 기도를 하고 형님의 석방을 위해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김은완 님의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 가고 있다. 심장병을 앓고 있던 형님이 지난 1월 9일 다시 혼절해 버린 것이다.

“담당 교도관이 전화를 걸어 지금 형님이 위급해 충남대 병원에 입원했으니 왔다 가라고 하더군요. 이튿날 날이 밝기 무섭게 찾아갔습니다. 형님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입니다. 관상동맥과 부동맥 증상이라는데 이게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97년, 98년에도 쓰러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소에서는 응급치료가 되지 않아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답니다.”

현재 김은환 선생님은 교도소로 돌아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은완님의 소원은 ‘단 하루라도 형제가 자유의 몸으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살다 가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형이 30년 죄이나 갇혀 있었으니 심근경색으로 몹시 고생하는 일흔살 노인인 형님을 그만 풀어주고 자신이 대신 짐을 지는 것이다.

“오늘처럼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질 때면 난 방시설이 없어 방안의 물조차 풍랑에 얼어버린다는 독방에서 가슴통증에 잠못이루고 앓아 누웠을 형님이 눈앞에 어른거려 목이 맙니다…

대통령님!

단 하루라도 좋으니 제 형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우리는 49년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살아 있으되 살아있지 못한 세월이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형님이 풀려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형님을 살리고 싶습니다. 형님이 살아야 비명에 가신 어머니와 아버지, 두형님이 이제라도 편히 잠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대통령에게 쓴 탄원서 중에서〉

김은완님은 유독 ‘설움’ 이란 말을 자주 썼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고단하기 그지없었던 삶을 응축하기에 ‘설움’ 이란 말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는것 같았다. ‘엄청 난 설움’ 을 안고 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이제 세상을 상대로 말을 시작했다는 김은완님은 인터뷰를 마치고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범불사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번잡한 도시의 지하철에서 차별인사를 나누고 헤어져 사람속으로 묻히는 김은완님의 느린 뒷모습에서 언뜻 범불사의 새벽고요 속에 두 손을 잡고 선 두 형제의 평화로운 모습이 보일듯 했다.

### 출소장기수 머물곳 마련 모금

오는 3.1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초장기수 선생님들 머물 곳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랜세월 옥고를 치루고 풀려나도 아무런 연고없이 홀로 계시게 되는 선생님들께 따스한 보금자리 방한칸이나마 마련해 남은 여생을 외롭지 않게 생활하시도록, 그동안 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난 93년 출소장기수 집마련 벽돌쌓기 하루주점을 통해 출소장기수 선생님들의 집마련 운동을 벌인바 있으며, 94년에도 낙성대 만남의 집이 불이 났을 때, 회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도움으로 완벽하게 집수리를 한바 있습니다.

30년에서 42년동안 0.75평 독방에서 갖은 질병과 싸우며 고난의 세월을 견디신 선생님들께 작으나마 위로가 되는 이 사업에 회원 여러분의 정성을 기다리겠습니다.

#### ● 출소장기수 집마련 성금 보내주실 곳

제일은행 159-55-001877 권오현

## 고제현 회원을 찾아서

편집부

**여**전히 쌀쌀하기만 한 겨울, 돌아올 봄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 새봄이 되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돌아돌아 온 길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설렌다.

이제 서른한 살이 된 고제현 회원은 한 달 전쯤에 시험을 봤다. 시험 과목 중에는 줄넘기, 구르기, 풍금치기, 그림 그림기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건 어느 정도 잘 했는데, 그리기 시험이 제일 자신 없다. 6명이 배구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었다. 그런 그림이 꼭 초등 학교 3, 4학년짜리가 그린 것 같다.

그의 소망은 빨리 발령이 나고, 학교로 가서 사랑이 조금 더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다. 6년 전 봄, 장애아를 교육하는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한 고 회원은 6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길을 가기 위해 특수교사 임용 고사를 보고 최종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것을 결심하고 실행했던 98년, 많이 울고 많이 싸우고 했다. 그러나 덕분에 우선 가야 할 길을 정했다. 한동안은 할 일이 많아서 아마도 정신없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늦게 시험을 보게 되기까지 참 많은 일을 했다.

만나서 자리에 앉자마자 편지 한 다발을 꺼내 놓는다. 광주교도소에 계신 김동기 선생님과 나눈 편지이다. 작년 말 편지 정리를 하면서 따로 모아 둔 편지를 모두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 주일에 한 통 이상씩 편지를 왕래하니까, 94년부터 지금까지 모아 둔 편지가 꽤 많다. 올해 68세인



김동기 선생님은 함북 성진이 고향으로 남한에 연고가 전혀 없으시다. 66년에 체포되어 3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그의 곁에는 남보다 가진 것 이 조금 적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사람은

아니다. 그만큼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고 회원의 삶이 그대로 보인다.

### 언제나 놓이 되는 데없이 좋은 친구, 김동기 선생님

후원회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회비 내고 김동기 선생님과 편지쓰는 것밖에는 없다고 자책한다. 후원회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거창하게 잡지는 않았다. 그리고 산행이며 송년 모임이 단체 모임과 겹쳐서 거의 참석하지 못했다. 아마,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감옥에 갇혀 계셨던 김동기 선생님과 편지쓰는 기쁨이라도 없었으면 자책만 하는 '불량 회원'이 됐을 거라 한다.

김동기 선생님과는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 함께한다. 작년에는 괴로운 일이 많아서 온통 우울한 이야기만 썼다. 그래서 늘 '너무 우울하죠. 나중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쓸게요.' 하며 끝을 맺었다. 감옥 안에서 아무 것도 해 주지 못한다며 괴로워하시는 선생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이 솔직한 만남이 그에게는 힘이 되었다.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진지하게 귀기울여 주시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지 못하는 말도 쓸 수 있

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김동기 선생님에게도 고희원은 “몇십년간 사귀어온 친구보다 믿음이 가는”, “이미 한가족” 같은 관계이다. “15척 옥담 주위에 30년간 높이 자란 느티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반환경의 무지”로 가슴아파하는 선생님에게 고희원은 세상을 향한 창이자, 인생길의 벗이다. 이번 삼일절 특사로 나오시게 된다는데, 거처는 어디로 정하실지, 지금 어떤 심정이신지. 혹, 광주에라도 거처를 정하시게 되면 또 편지로 나누어야 하나 어찌나 걱정이다.

그는 지금 김동기 선생님과 함께 금강산에 갈 날을 손꼽아 본다.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 나자과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

꿈많은 시절, 남들이 좀더 잘나고 화려해지고 높아지고 싶은 꿈을 갖고 있던 그 때, 그는 장애아를 가르치고 함께 하는 것으로 꿈을 정했다. 물론 독실한 신앙의 힘이 한몫 했다.

특수 교육에도 갈래가 많은데 그는 특히,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많다. 이들에게 교육과 복지가 가장 중요한데, 특히 장애아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늘 장애아에 대해 고민했지만, 복지면 복지, 교육이면 교육, 취업이면 취업 이런 것들을 늘 따로따로 고민했던 것 같다고.

졸업하자마자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학교에 들어갔을 때, 사범대 학생회장을 하다가 남들보다 좀 늦게 졸업한 회원은 성남의 조기 교실에서 일했다. 사람의 손길이 더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곳에서 일 년 일하다가 구체적인 것에 매몰되어서는 대안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한가족 협회’와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활동하다 여기서 일하고 있던 남편을 만났다.

그러나 이 곳은 큰 대의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와 싸움을 하지만 이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리에 대한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다. 목표와 고민들 속에 자신

이 없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이제 그가 가르칠 아이들은 주로 정신적으로 아직 덜 갖춘 아이들이다. 몇 배의 노력이 들어야 할 것은 알지만. 그는 항상 아이들과 논다고 표현해 왔는데, 이제 가르친다는 표현을 해야 할 것 같다.

#### 새 나자과에 대한 배운 새로운 사랑

결혼을 하고서 새로운 사랑을 배웠다. 시댁은 참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다. 7남매를 두신 시부모님은 워낙 살아가는 철학이 다르고, 일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으시다. 시아버님은 칠순이 넘으셨건만, 넷째인 남편을 유일하게 장가 보내신 터라 손주가 하나도 없으시다. 아들 둘을 신부로, 딸을 수녀로 기꺼이 마치셨기 때문이다. 기도를 많이 하셔서 무릎이 잘 아프신 시부모님께 빨리 손주를 안겨드려야겠구나.

그런 부모님을 닮아서인지, 남편은 욕심이 없고, 긍정적이고, 남을 배려 잘하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 다리가 좀 불편한 남편은 정부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싸움 끝에 장애인들에게 내 준 노점은 하고 있다. 그런데 결혼하면 장점이 단점되고 단점이 장점된다더니 정말 잘 싸운다. 말이 없고 진지하고 자신감 있는 것에 반했는데, 이젠 너무 말이 없으니까 좋고, 자신감이 자존심으로 변하는 것 같다고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그런 남편이 너무 든든하다.

앞으로 그는 아이들의 희망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 그의 삶을 보고서는 아무도 보람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세상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이다. 고 회원의 주위에 그득한 사람들 얘기로만도 그를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을 빼놓고는 그에 대해 설명 할 길이 없다. 그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해지기를.

##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1** 김대중 대통령의 15대 대통령선거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문제가 법무부 측이 자신들이 마련한 “법인안”을 고집하는 바람에 98년 한 해를 성과없이 넘기고 말았다. 또한 작년 12월 9일 대통령이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 정책위의장과 법무부장관 등 당정 관계자들에게 “국민회의와 자민련 정책위의장이 양당의 단일안을 만들어 재야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은 뒤 법무부측과 당정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더욱이 어제는(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와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 법무부의 당정회의가 열렸으나 또다시 법무부의 ‘완강한 고집’으로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한다.

**2** 우리들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장의 책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온 것에 대한 국가적 ‘반성장치’로서 의의를 갖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있어, 법무부가 자신들의 입지강화라는 정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왜곡, 자연시키고 있는데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25일 법무부가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없이 ‘밀실’에서 추진해온 점은 차치하고라도, 법무부는 자신들이 만든 “법인안”을 발표하며 유엔이 독립성 보장을 강조한 원칙들을 도리어 “법인안”이 유엔의 권고인양 왜곡, 호도하여 왔다. 유엔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있어 “정부나, 정당, 기타 영향력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여야” 함을 그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법인”안은 △설립정관을 만들 설립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인권위원회의 임명제청권을 법무부장관이 갖고 △위원회의 세부적인 조직구성 및 활동사항을 규정할 대통령령을 법무부장관이 제·개정하고 △위원회가 취한 권고조치나 조치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을 경유해 인권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의 예산편성시 법무부장관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인권위원회의 모태가 되는 설립정관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설립 위원들이 법무부장관의 인기를 받아 작성하게 되고, 위원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감독하게 될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되면, 인권위원회는 설립과 동시에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법인이 가진 본질적 한계 때문이다.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시안 발표에 이어 지난 11월 수정안을 내놨어도 이러한 ‘독립성 훼손’ 문제가 제거되지 않았듯이 법무부가 또다시 몇가지 세부사항에 대해 손질을 한다해도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법인으로 상정하는 한 독립성 보장은 불가능하다.

## 4

따라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설립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특정한 기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립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연구 및 자문기능, 교육과 홍보기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 기능들을 국가기관이 아닌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밖에 없는 '법인'으로 해서는 독립성과 실효성이 어느 것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높은 권위와 함께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에 국가기관으로 설립해야 하는 것이다.

## 5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상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국회의 동의나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 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연례 인권보고서와 특별보고서는 법무부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어야 하고 △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회계법 제14조에 정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간주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등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예산편성부처에서 인권위원회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해야 하며 △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시 자료제출 요구권, 관련자 출석 요구권, 증인 신문권, 교정 및 구금시설 · 수용시설 · 다수인보호시설 등에 대한 현지 조사권, 재소자 또는 시설수용자와의 비밀 접견권 등 충분한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또한 의문사, 과거 정권하에서의 의혹사건 등 과거청산문제에 대하여 조사위와 같은 형태의 특별기구를 두어야 한다.

## 6

50년만의 민주적 정권교체를 계기로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은 바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소중한 약속이다. 또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립되는가 하는 것은 아태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지금 이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법인인"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을 확정해 다가오는 김대중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 앞에 공표할 것을 촉구한다.

1999년 2월 10일

민주화실천기독운동협의회

## 김대중 대통령님, 이희호 여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7살이 된 아들과 69세 되신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는 민경우씨의 처 김혜정입니다.

긴 세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꾃꿋이 살아오신 대통령님과 여사님을 존경하는 이 시대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5살 때 아빠를 빼앗겨 함께 지내지 못한지 2년이 다되어가는 어린 아들 준홍이를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가는 길이 아직 익숙치 못하고 이런 이별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가슴속이 답답해지는 그런 엄마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남편의 감옥살이와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야 제가 굳이 여러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사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남편되는 이가 통일운동에 나서서 범민련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다가올 시련을 구체적으로 느낄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기부의 사찰과 미행, 도청 등에 시달리면서 차츰 현실로 다가왔고 구속이 되어 안기부에 잡혀간 후로 긴긴 재판의 과정을 거치면서 3년6월형을이라는 판결을 받고 나서야 분단의 땅에서 통일운동을 한다는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가협을 통해서 만나게 된 가족들의 사연들 또한 저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공유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부인과 어린 자식들과의 너무나도 긴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 이희호 여사님!

저희와 같은 정치적인 박해자들의 처지를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이해하시는 대통령님과 여사님을 맞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감동의 순간과 대통령께서 민가협 어머니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시던 장면은 저희들 마음속 깊은 한을 눈 녹이듯 풀어 내주었던 감동의 순간들이었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은 그전처럼 덤덤하게 마음이 얼어붙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작년 8.15를 앞두고 대사면이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어느날 아침, 사상전향서 대신 준법서약서를 써야 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수들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준법서약'을 요구한다는 것이 사상전향제도와 무엇이 다르다는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지금 그 기쁨을 같이 나누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같은 뜻을 품고 독재와 싸웠던 사람들,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애써온 젊은 청년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있는 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의 남편과 더불어 많은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했습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지금 그 기쁨을 같이 나누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같은 뜻을 품고 독재와 싸웠던 사람들,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애써온 젊은 청년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있는 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 쉬임없이 국정에 힘쓰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심수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면조치가 없는 한 저는 국민의 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준법서약서를 써야 할 수많은 죄를 지은 권력자들과 부정부패 사범들이 위풍당당하게 감옥문을 나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작 50년만의 정권교체를 목 마르게 기다리고 애써왔던 양심수들과 저희 가족들은 가슴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용서와 화해를 정치적인 신념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아직까지 우리 양심수들에게는 화해의 손을 아끼시는 건가요.

부디 바라건대 99년 새해에는 기쁜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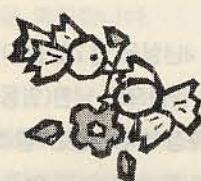
양심수를 감옥에 둔 저희 가족들 마음을 헤아리시어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길 소원합니다.

1999. 1. 22.

민경우(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친 김혜정 드림

이 글은 범민련 전 사무처장 민경우(97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3년6월형 선고, 현재 부산교도소 수감중)씨 부인 김혜정씨가 쓴 글이다.

## 2월 산행 안내



- 일 제 : 1999년 1월 24일(일) 오전 10시
- 어디로 : 도봉산 우이암
- 모이는 곳 : 우이동 그린파크 (6번, 28번, 23번 종점)
- 준비할 것 : 회비, 따뜻한 물, 맛난 도시락
- 문의 : 후원회 사무실(763-2606)

100일

이은미(부산구치소 수감중)

죽어서도 잊지못할 1998년 7월 22일.

전쟁치르러 나간 군인들이 '적진'을 기습할 때 그럴까? 수사관 10여명이 흥분과 긴장과 알지못할 광기로 눈을 번득이며 네 아빠와 이모, 엄마를 격리시켜 놓고선 온 집을 뒤지며 사진을 찍어대도 이 엄만 그저 잡든 널 내려다 보고만 있었구나.

이 자식 깨면 어쩌나… 이 애를 어쩌고 가나…

며칠이나 걸릴까. 그 생각만 하다가 뒷 때문에 잡혀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악쓰며 대들어 보지도 못한 채 끌려 왔구나.

비가 몹시도 오는 날이었지.

축축하고 으스스한 그 새벽에 잡든 널 안고 문이 열렸는지도 모를 놀이방으로 향하면서도 눈만 잠시 떴다 다시 잡든 널 선생님 품안에 안겨놓고 돌아서면서도 그것이 이 긴 오랜 이별의 시작일지 상상도 못했구나.

하루, 이를 엄마, 아빠 몹시도 찾겠지만 길어야 며칠이면 볼 수 있겠지, 그 때 따뜻이 안아주고 잘 얘기해주면 영리한 내딸 큰 상처는 받지 않겠지.

그렇게 작정한 이별이 100일이 되었다.

그것이 이 긴 이별의 시작인줄 알았다면, 절대로 널 그렇게 떼놓고 오진 않았을걸.

목숨을 걸고서 그들과 몸싸움을 해서라도 널 지켰을걸.

하루하루 달력보지 않아도 귀신같이 알겠더구나. 너를 못본지 열흘, 보름, 한달…

그리고 49일만에 검사실에서 안아본 너는 너무도 변해버린 엄마 모습에 겁이 났는지, 충격을 받았는지 선뜻 안기려 하지 않았지. 펑펑 우는 엄마 앞에서 울지 않으려 호르르 한숨 쉬고 치마들어 눈물닦던 네 가여운 봄짓.

매일 눈뜨고 눈 감기전 벼룩처럼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이 며칠짼가, 우리 솔이 혼자 남겨 놓은 날이—

그 몸서리 쳐지는 날로부터 100일이 되었구나.

- 이 편지는 1998년 7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른바 '영남위 사건') 구속되어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이은미(35세·울산여성회(준) 회장)씨가 딸 해솔(5세)에게 쓴 편지이다. 이은미씨는 이 사건 관련으로 남편(임동식, 1심에서 9년 선고), 동생(이희, 1심에서 4년 선고)과 함께 구속되었고 사건의 조작을 주장하며 지금은 항소중이다. 이은미씨는 만성디스크 중증환자로 빠른 시일내에 수술을 받지 않고는 더 이상 허리를 쓸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태이다. 가족들은 현재 약 일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악쓰고 있다.

## 못견디게 그리운 누님께

손성모(전주교도소)

사랑하는 큰 누님!

이 호칭을 얼마나 부르고 싶었던가.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님과 누님들이 못견디게 그리워 가슴을 쥐어뜯으며 지새웠던 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막내인 저 때문에 평생 눈이 짓무르도록 우시고, 결국 눈이 막어지신 채 낫지도 않고 돌아가셨다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눈물로 짓무른 어머니의 눈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시절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욕심이 많았던 저는 좀더 배워보고자 하는 결심으로 집에서 나가 고학생활을 시작했고 이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지요.

그때 누님댁에 잠시 들려 “누님, 내 졸업하고 누님 데려갈게. 어머니 모실게.” “어머니 환갑잔치 준비는 내가 할거야.” 했지요.

그해 6월, 전쟁은 일어났고 우리 가족의 오랜 헤어짐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 한동안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벽에 머리를 짓찧으며 울어대기도 했습니다.

처음 누님이 교도소로 저를 면회 오셨을 때 “꿈도 안꾸고 잊어버렸어. 그저 죽었거니 했지”

“여기가 어디여, 바로 산저승이 아니여...” 차마 말을 맺지 못하는 누님의 눈은 어느새 어머니의 눈처럼 물어졌습니다.

누님을 보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의 말투가 생각나고 그리운 어머니 생각에 오래도록 실컷 울었습니다. 이 동생에게는 큰 누님 하면 지금의 쪼글쪼글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엄격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상냥하고 인자하고 부지런하고 명랑한 모습만이 떠오른답니다. 누님이 시집간지 몇 년후 아버님의 뒤를 졸래졸래 따라 누님댁에 갔을 때 저를 끌어안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밥솥에 불을 때면서 쓰다듬어 주시던 다정다감한 모습과 그후 언젠가 누님집에 혼자 갔을 때 오직 이 동생을 위하여 누님께서 흥치마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쌍선동 깊은 산중까지 들어가 가시에 찔리우고 긁히면서 바구니에 열매를 가득 따가지고 오셔서 잘익어 딱벌어진 것만 골라 이 동생에게 먹여주신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누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운 과거가 있음으로해서 오늘의 우애가 있는 것이고 내일의 보다 변치 않고 두텁고 다정한 형제들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전 조카가 승빈이와 수빈이를 데리고 면회를 왔습니다.

누님께서는 효성스러운 자녀들은 물론 이 못난 동생을 위해서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누님의 만수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전주에서 당신의 동생 성모 올립

- 손성모 선생님은 1929년 전북 부안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전쟁이 일어나자 의용군 입대, 월북. 1981년 치안본부에 체포. 현재 19년째 수감중. 누님에게 쓴 이 편지는 지난 2월 4일 민가협 목요집회때 손선생님의 석방을 촉구하며 송민규(가극단 금강 배우)씨가 낭송한 것이다.

1. • 새해 첫날을 맞아, 전쟁포로로 원적지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함세환, 김영태, 유운형 선생님 임진각에서 망향제 가짐. 양심수후원회, 전국연합 등 단체와 출소선생님들, 청년회원들 60여명이 함께 함.  
 • 낙성대 만남의 집 선생님들과 박용길, 김승훈 지도위원님께 새해 인사를 드림.
4. •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협 농성장 방문.  
 •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농성장 격려방문(조계사).  
 •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구속노동자 석방 건의하기로
5. • 유가협, 추모단체연대회의, 국회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 한총련 농성장(명동성당) 격려방문.  
 • 양심수들에게 연하장 발송.
6. • 민가협 어머니들, 낙성대 만남의 집 방문, 새해인사.  
 • 박상천 법무장관, "구속을 남발하거나 다른 경찰 청에 비해 구속률이 높은 일선 지검·지청장에 인사 불이익 주겠다"고 밝혀  
 • 성남시 분당구청 서현역 앞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임신부 포함한 노점상들, 단속반원에 집단폭행당하고 전노련 간사 박영생씨, 단속반원에 의해 서현파출소에 끌려감.
7. • 민가협 목요집회(262회).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발표. 1월 1일 고려대생 4명 구속(한총련 불탈퇴)사건에 대해 류순(97년 정경대 학생회장, 5기 한총련 대의원) 어머니 발표, 황영하(서울산업대, 한총련 문건을 통신에 퍼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구속) 편지낭독(선배 정운희), 양효식(강원대 강사, 풀무질 출판사 편집장, 출판한 책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씨 사건을 부인 김정희씨가 발표  
 • 구조조정 반대 파업 진행중이던 충북 옥천 조폐창에 경찰력 투입  
 • 민가협 어머니들, 명동성당 한총련 농성단 격려방문  
 • 경찰, 제7기 한총련 출범을 앞두고 조직재건 활동
8.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시간강사 신원조사 실시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신원조사를 거부하기로 함.  
 •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북을 찬양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혐의로 (국보법상 찬양, 고무) 구속기소된 김아무개(19) 군에게 1년6월 징역에 3년 집행유예 선고.
10. •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한 지난 11월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률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박종철 열사 12주기, 김수자 열사 3주기 추모제(모란공원 열사묘역).
11. •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간강사 신원조회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힘.  
 • 인천시 송현동 재개발지역, 청송건설 소속 용역 반원 부녀자 폭행하며 강제철거 시도  
 • 민권구국선언기념 <양심수 없는 나라> 출판기념회(향린교회)
12. •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8세·85년 구미유학생 사건 구속·20년형)씨, "준법서약 근거 밝히라"는 내용으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소장에서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소자분류처 우규칙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도 당하고 있다고 주장.  
 •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판사, 지난해 총파업 등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단병호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 선고.  
 • 노점상 8백여명, 분당 서현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노점 탄압 중단 촉구
13. • 85년 민청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을호씨를 돋기 위해 김근태, 유시춘 씨 등 '이을호를 생각하는 작은 모임' 결성.  
 • 정치수배해제 문제와 관련, 남궁진 의원 면담(김정숙 상임의장, 오종렬 광주전남연합 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양심수 석방, 수배해제 등 양심수 사면, 준법서약제 등 철회 요구.

- 유가협의 여의도 농성장 격려방문.
14. 민가협 목요집회(263회).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로 고 박종철 열사 12주기 추모사(배은심 유가협 회장), 울산영남위 사건 사례(대책위 이미애씨), 김판태(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구속)씨 부인 최소영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학생구속자, 수배자, 양군모 사례를 오창규(전남대, 93년부터 7년째 국가보안법 위반 수배)씨 부친 오종렬씨가 발표. 경인총련 노래단 천리마가 함께 함.
-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 “일괄사표를 받은 뒤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의 해고도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자에 승소판결
  - 서울대 박종철 열사 추모비 앞에서 박종철 열사 12주기 추모집회.
  - 시흥 혜명양로원으로 안학섭 선생님과 함께 임병호 선생님 면회 다녀옴.
  -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김재돈(서울농대 97년 학생회장), 이영수(서울농대 97년 부총학생회장)씨가 김영삼 전대통령의 국회청문회에 출석을 외치며 시위하다가 노량진 경찰서에 연행됨. 민가협 어머니들, 면회.
15.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 '탈북자 인권침해 방지 및 생활정착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갖고 이들이 남한에 도착한 뒤 안기부에 의해 당한 고문, 모욕 등 인권유린 사실 폭로(명동 카톨릭회관)
-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반국가단체'(국가보안법 3조) 구성혐의를 인정해 박경순씨에게 징역 15년, 김창현 동구청장 7년등 징역 3·15년 중형선고.
  - 국민승리 21 등 인권·사회단체 회원들, 영국대사관 앞에서 '피노체트 기소 촉구' 시위와 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16. 양심수후원회 10차년도 사업과 회계(4월-12월까지) 감사. 김규철 선생님과 진관스님이 꼼꼼히 감사하심.
- 대구 만남의 집 집들이
17. 늦봄 문익환 목사 5주기 묘소참배, 추모예배(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18. • 늦봄 문익환 목사 5주기 추모예배, 문익환 전집 출판 기념회(기독교회관).
- 통일 할아버지 늦봄 문익환 목사 5주기 추모 '평양가는 기차표를 다오' 공연(민족회의 주최/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 주관/기독교 100주년기념관)
19. • <후원회소식> 87호 발송
- 경기지방경찰청, 한총련 수배 대학생의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발견된 무선 도청장치에 대해 수사작수.
  - 전국연합 등 제야 시민단체 회원 150여명, 법원앞에서 영남위 사건 유죄선고한 사법부 규탄 집회.
20. • 서울고법 합의4부, 진보민청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 유죄 판결.
21. • 민가협 목요집회(264회). 전혜영(덕성여대, 98년 자연대 회장, 6기 한총련 대의원)씨 사례(명동성당에서 집회후 귀가하는 중 잠복해 있던 사복형사들에 의해 연행. 이를 말리는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함. 전혜영 학생이 심하게 다치고 외투가 찢어짐)사례를 덕성여대 자연대 주영심 학생이 발표. 한총련 대의원으로 수배중인 김대성(한국외대 용인, 5기 한총련 대의원)씨 여자친구 방에서 도청장치 발견된 사례를 김대성 씨 부친 김다전씨가 발표.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8·15에 풀려난 정화려씨, 전두환 등 5·18, 12·12 사건 관련 범죄자 14명이 보안관찰 처분에서 면제된 사유를 알고 싶다며 법무부에 관련정보 공개청구
  - 5개 교도소 양심수에게 <말> 2월호 발송.
22. • 양심수후원회 새해인사모임과 1월 운영위원회. 지도위원, 감사, 운영위원등이 함께 하다.
-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 “자산매각 방식으로 공장을 인수하더라도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영업인수나 다툼없다면 고용승계 의무를 떠맡아야 한다”며 포철계열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23. • 민가협 의정단, 운영위원회, 구속자 가족 등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초청으로 청와대 방문. 김대통령으로부터 3·1절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준법서

- 약문제 등 인권개선책과 인사말을 듣고, 답사와 함께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 철회, 정치수배해제,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문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
- 경남 함양, 진주, 산청경찰서 피의자들에게 족쇄 채워 말썽
  - 안양사랑청년회 신입회원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청년학교에서 '국가보안법, 인권, 양심수문제' 등 강연.
24. 1월산행. 모두 23명이 참여해 평창동 올림피아 호텔 앞을 떠나 일선사에 도착,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고 보현봉을 올랐다가 정릉으로 내려오다. 뒷풀이는 김교영 선생님 댁에 가서 사모님(이해옥 님)께서 밤새 마련하신 진수성찬으로 포식을 하며 노래와 춤으로 즐겁고 뜻있는 시간을 가짐.
- 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 96년 시위도중 숨진 노수석 씨의 유족들이 낸 6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배상책임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
25. 민가협 임시운영위원회. 3·1절 특사 대비 활동계획(사면·복권신고센터 개설,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 캠페인 등) 협의.
26.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 불심검문시 강제로 가방을 수색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피해자 장아무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27.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친양, 고무)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태훈 사건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사항 중 '유사한 위반 사례 재발 방지와 금전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사회 결정을 거부할 것을 결정
- 대법원, 안기부가 97년 일본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 공작금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했다며 배은주씨 등 동아대 졸업생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간첩죄 등) 구속한 이른바 '동아대 자주대오 간첩단 사건' 상고심에서 간첩부분 무죄확정.
-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정부가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북한어린 살리기 운동본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기부금품 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 인도네시아 정부, 동티모르 독립가능성 시사
28. 민가협 목요집회(265회). 초장기수 석방을 위한 집회로 김정숙 상임의장의 여는말에 이어 홍명기(71세, 38년째 구금중. 대구교도소 수감중)씨 동생 홍명자씨 호소, 김은환(70세, 31년째 구금중, 대전교도소, 현재 관상동맥중, 부동맥 현상으로 앓고 있다)씨 조카 김영만 씨 호소, 양희철(68세, 37년째 구금중, 광주교도소)씨가 누나에게 쓴 편지, 김동기(68세, 34년째 구금중, 광주교도소)씨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송민규(가극단 금강 배우)씨 낭송. 노래 가극단 금강.
- 국제앰네스티,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대통령 앞으로 서한 보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29. 민가협, 수가협 회원들 국민회의 당사로 조세형 권한 대행과 양심수 조건없는 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촉구.
- 법무부, 행형법 등 교정관계법 개정하기 위해 '교정관계법 심의회' 구성. 제1차 회의를 열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검찰국장, 교정국장 등 법무부 당국자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 교정현대화 정책에 관한 자문역도 맡는다고 함.
30.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시민 촉구집회' (민권공대위주최, 서울역 광장).
31. 국가정보원, 84년부터 92년 사이 월·납북자 22명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며 유엔인권위에 진상조사 촉구하기로 했다고.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통일운동 단체 대표들, '통일운동 단체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향린교회)
  - 양심수 110명(기결)에게 영치금 발송.
  - 미국 수도장로교회(조명철 목사)에서 보내온 자녀돕기 성금을 민경우, 최호경, 장창호, 이화춘 자녀에게 전달.

## 알립니다

- 박종대(독일 퀼른대학(문학·철학박사과정)에 유학 도중 한국에 온 96년, 안기부에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2심에서 부분무죄 선고 받고 풀려남)씨가 '잊지못할 아름다운 우정에 관한 12편의 이야기'를 묶은 <너를 위한 내 마음의 따스한 방>(백의출판사)을 번역출판했습니다. 우리의 가슴 한 구석을 건드려 주는 따뜻한 책입니다.
- 한양대 물리학과 86학번 동기모임에서 성금 1,000,000원을, 경북 문경에 계시는 박문성 회원께서 1,200,000원의 큰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독일의 '토요기도회'에서 7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강숙자 회원(제주의료원 근무)께서 멀리 제주에서 싱싱한 굴 한박스를 사무실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민가협 어머니들이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있는 서울역 광장에 김선명 선생님(45년동안 복역한 세계최장기수, 낙성대 만남의 집 거주)께서 어머니들께 수고하신다며 굴 한박스를 가져오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 2월 21일, 이현, 황현숙 회원의 아들 승민군이 첫돌을 맞았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 조명희 회원이 1월 3일, 낙성대, 봉천동 만남의 집 선생님들을 집으로 모셔 새해인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규 운영위원이 어깨골 골절 부분 잇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뒤에도 2월 2일 재수술을 하였으며 너무 고생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성바오로병원 715호실(958-2245). 빠른 회복을 빕니다.
- 93년 3월 6일, 21년 옥고를 치루고 풀려나 제주에 살고 계셨던 고성화 선생님께서 2월 3일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3리 3852번지로 이사하셨습니다. 제주의 뜻있는 여러분의 주선으로 방 3개의 매우 넉넉한 집으로 옮기게 되셨답니다. 축하드립니다.
- 대전교도소에 31년째 수감중인 김은환 선생님이 지난 1월 9일 관상동맥과 부정맥 증상으로 혼절하여 충남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민가협에서 김정숙 상임의장과 권오현 양심수후원 회장이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김은환 선생님은 97년 2월과 98년 8월에도 같은 증상으로 유성성심병원에 나와 치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근경색으로 발전되어 위험한 상태이며 교도소 같은 환경에서 복역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김은환 선생님은 13일 퇴원하여 대전교도소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인 김익진 선생님도 심장과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장병락 선생님은 혈변이 나오고 류락진, 안영기 선생님도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 민가협 이종옥 엘리사벳 회원(1995년 한총련 대표로 통일축전 참가차 평양을 방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해 9월, 3년 만기출소한 정민주(인천대)씨 어머니)이 위암으로 투병을 해오시다가 안타깝게도 1월 15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7일, 부평공원묘지에 모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안양회 회원이 뇌 연화증, 경련성 질환, 고혈압, 골다공증, 요추 협착증 등 질환으로 지난 1월 12일 영등포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사회원을 환영합니다

이현숙(안양시 달안동)  
이미정(서울시 노량진2동)

최은희(서울시 남창동)  
박보순(서울시 논현동)

차병직(서울시 서초동)